

일본 단기봉사활동의 효과에 관한 기초조사*

이 선 희**

(e-mail : shlee@swu.ac.kr)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5. 연구결과 |
| 2. 선행연구 | 5.1 GSL에 대한 만족도 |
| 3. GSL 개요 | 5.2 GSL의 성과와 과제 |
| 4. 연구방법 | 6. 마치며 |

키워드: GSL(Global Service Learning), 大学特性化事業(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日本(Japan), 日本語学習(Japanese Language Learning), 異文化(cross-cultural)

1. 들어가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한국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필자 소속 대학 역시 교환학생 프로그램, 바름국제프로그램¹⁾, 해외 인턴십·파견학생프로그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세계문화체험과 봉사²⁾, 해외봉사와

*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2018년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본 논문은 한국일본근대학회 제36회 국제학술대회(일시:2017년 10월21일, 에히메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필·수정한 것임)

** 서울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일본어교육

1) 여름방학 중 약 4주간 협정교 및 비협정교 외국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영어로 다양한 주제에 관해 강의 수강 및 문화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2) 2학점을 인정받으면서 해외 봉사 및 현지문화를 체험하는 본교만의 특성화된 교과목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중 2~3주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 프랑스, 몽골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봉사를 하면서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체험 및 봉사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 현지 언어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한편 미래 학령인구의 감소, 인재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 새로운 교육형태의 출현 등으로 대학 교육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 분야를 더욱 특성화시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대학 특성화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이하 CK사업)³⁾을 시행하고 있다. 필자 소속 대학은 대학 특성화사업에 6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현재 5차 년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어일문학과는 ‘한일 휴먼 네트워크형 창조적 인재 양성사업단’을 통해 한일 양국의 우호와 글로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본 단기봉사활동인 글로벌서비스러닝(Global Service Learning, 이하 GSL)은 사업단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일본 여러 지역단체에서의 교류·봉사활동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GSL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GSL 결과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일본 단기봉사활동이 학생들의 일본어학습 및 이문화(異文化)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대학에서 주도하는 단기 체험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단기 해외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 해외 봉사활동 등

등으로 파견된다. 세계문화체험과 봉사는 면접전형, 봉사마인드 및 파견국가에 대한 사전교육(4회),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파견준비, 현지 활동, 발표회 및 보고서 등으로 이루어지며 선발 시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 3) 대학 특성화사업은 대학 학부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여 대학이 경쟁력을 갖도록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대학별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의 성장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교육부 대학 특성화사업의 목적이다.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2018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출처]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는 ‘대학 특성화사업’ 작성자 교육부

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증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단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를 고찰한 논문으로는 박은정·박매란(2018)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부산 소재 대학에서 글로벌 어학 실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필리핀으로 단기 해외 연수를 다녀온 학생 79명을 대상으로 Chen과 Starosta(2000)의 문화간 민감성 측정도구(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를 사용하여 외국에서의 단기 유학, 성별, 성적 및 거주 경험 등이 문화간 민감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단기 해외 연수 후 상호작용 참여, 문화 차이 존중, 상호작용 자신감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단기 해외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타문화에 노출됨으로 인해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이선미·김찬란(2013)은 대학생 해외 체험 프로그램의 효과를 문화간 감수성 향상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으로 해외 활동 구성 요인이 문화간 감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갈등 상화에 대한 설명, 현지 또래와의 우정 기회, 한국인 팀원 간의 유대 등과 같은 해외 활동 구성 변인이 참가자들의 문화간 감수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밝혀내었다.

서홍란·박정란(2014)에서는 NGO 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한 대학생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는데 해외 봉사활동이 글로벌 시민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조혜영(2015)은 대학생들이 해외 봉사활동 참가 경험을 통하여 국제 이해 교육의 주요 이슈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또 해외 봉사활동 과정에서 겪는 한계와 어려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해외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국제 이해 교육 요소 중 세계의 상호의존성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문화 간 차이나 다양성 인식과 관련해서는 현지 활동 중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현지 체험의 기회를 즐기는 계기를 갖게 되며, 문화간 차이를 좁히는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해외 자원봉사 참가를 통해 개인적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와 같이 해외 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문화 간 접촉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고 문화간 감수성, 글로벌 시민의식, 다문화 수용성 등이 향상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해외 봉사활동은 주로 동남아 혹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봉사활동

동 효과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과 같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나라에서의 봉사활동이 참가자들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나 글로벌 시민의식, 이문화(異文化) 이해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필자 소속 대학의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GSL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와 같은 일본 단기봉사활동이 학생들의 일본어학습 및 이문화(異文化) 이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GSL 개요

GSL은 일본 단기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일본 현지에서의 사회·문화 체험학습과 일본인과의 교류를 통해 전공과정에서 배운 일본 관련 지식을 심화한 비교과 과정이다. 필자소속 학과의 유관기관 및 자매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기관에서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⁴⁾ 지역사회와 공생하며 환경, 인권, 문화 다양성 등을 체험하고 다양한 지역의 현지 일본인들과 교류함으로써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 및 문화 간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도 고베 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도쿄, 나고야, 교토, 고베 4개 지역에 매년 20명 전후의 일어일문학과 소속 학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4명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2014년-12명, 2015년-18명, 2016년-18명, 2017년-24명, 2018년-12명⁵⁾). <표1>은 2018년도 현재 GSL 파견 지역 및 기관,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단 소속 학생들은 인솔 교수의 지도 아래 일본의 장애인 및 고령자 시설, 방과 후 교실 등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거나 커뮤니티 센터 및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현지 스텝 및 자연봉사자, 학생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게 된다.

4) 1차 년도인 2014년에는 13박 1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나 2차 년도부터 9박 10일의 일정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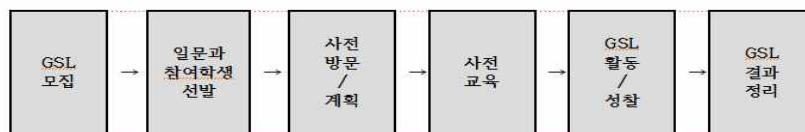
5) 2018년 하계 방학에 파견한 인원이며 동계 방학에는 12명을 파견할 예정임

<표1> 2018년도 GSL 활동 내역⁶⁾

지역	기관명	활동 및 내용
나고야	기독교 복지기관 산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아동 돌보기 활동 ○ 장애아 돌보기 활동 ○ 고령자 자활 작업 도우미 활동 ○ 현지 스태프와의 교류회 및 한국문화 홍보활동
고베	오부초등학교 고호쿠고등학교 다카토리 커뮤니티 센터 고베친화여자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돌봄교실 도우미 활동 ○ 한국어 교육 및 일본 고교생들과의 교류활동 ○ 기관의 홍보 자료 일한 및 한일 번역 활동 ○ 일본의 다문화 정책 학습 ○ FMYY라디오 방송 출연 및 서울여대 특성화사업 홍보
교토	교토발런티어학습실천연구회 미야마초 지이진흥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 지역 대학생 및 지역 거주민과의 교류 활동 ○ 고령화 농촌 지역의 눈 치우기 작업 활동
도쿄	쿠니타치시 공민관 스즈란 고령자 데이케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지원 봉사 활동 ○ 가루타 대회 진행 ○ 지역 거주민과의 교류

<그림1>은 GSL 프로그램 진행 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GSL 파견 학생은 학기 중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다. GSL 참가희망자는 지원동기 및 봉사활동계획 등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면접 과정을 통해 선발된다. GSL은 방학 중에 실시되고 있으며 파견에 앞서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 현지 적응 능력 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인솔 교수 및 참여 학생 전체가 모여 매일 하루 일과에 대한 성찰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GSL에 참여한 학생들은 성찰일지를 작성하게 된다. 귀국 후에는 GSL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는 사업단 소속 교수와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GSL 보고회를 통해 발표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과한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1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6) <표1>은 ‘한일 휴먼 네트워크형 창조적 인재 양성사업단’ 4차 년도 연차보고서에서 발췌한 자료임



<그림1> GSL 프로그램 진행 절차

4.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GSL 활동에 대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GSL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본 사업단에서는 GSL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전조사는 GSL 파견에 앞서 사전교육 마지막 시간에 실시하였다.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참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과 GSL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조사는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어느 쪽도 아니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1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다음으로 사후조사는 GSL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항목은 GSL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봉사활동 및 교류활동에 대한 평가, 성취도에 관한 항목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후조사 역시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이 역시 점수화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SL에 참가한 학생들은 9박 10일 간의 일정 동안 하루 일과에 대한 성찰일지를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한 성찰일지를 그룹별로 모아 귀국 후에 GSL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게 된다. GSL 결과보고서에는 활동 지역 및 기간, 일정, 참가자 정보, 활동 일정, 활동내용 소감 및 종합의견, 참고자료(활동사진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다. 결과보고서 가운데는 그날 있었던 사실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과 각 활동 시 느꼈던 생각이나 감상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었다. 이 가운데 본 논

문에서는 활동내용 소감 및 종합의견 부분을 중심으로 각각의 활동이나 상황 등에 대해 학생들이 적은 소감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GSL 결과보고서의 분량은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그룹별로 짧게는 6페이지에서 많게는 60페이지에 이르렀다. <표2>는 분석 대상으로 한 GSL 결과보고서의 내역이다.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최근 2년간의 GSL 결과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GSL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경험들이 참가자들의 일본어 학습 및 이문화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2> GSL 결과보고서 내역

활동 시기	지역	참여인원 (명)	보고서 분량 (매)
2017-하계	나고야	6	60
2017-동계	나고야	6	20
2017-동계	교토	6	54
2017-동계	고베	6	24
2018-하계	나고야	6	6
2018-하계	도쿄	6	9

5. 연구결과

5.1 GSL에 대한 만족도

<표3>은 2014년부터 2018년 하계 방학까지 GSL에 참여한 학생 총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이다. <표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GSL 참가자의 대부분은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쌓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항목8),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좋은 면이 많으며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항목1, 항목2). 또한 참가자의 약 70%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항목3)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항목4). 한편, GSL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람과 흥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등(항목9, 항목10, 항목11, 항목12) GSL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항목5, 항목6, 항목7).

<표3> GSL 사전조사 결과

항목	1	2	3	4	5	평균
1.나는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15	40	27	4.10
2.나는 좋은 면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20	38	24	4.00
3.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	4	18	37	24	3.94
4.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6	20	38	20	3.86
5.GSL 프로그램은 참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5	31	48	4.51
6.GSL프로그램에서 배울 내용들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37	44	4.49
7.GSL 프로그램에서 배울 내용들은 흥미롭고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27	52	4.56
8.나는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쌓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8	23	53	4.54
9.GSL 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다.		1	15	31	37	4.24
10.GSL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7	31	46	4.46
11.GSL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은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32	48	4.52
12.GSL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은 흥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5	32	46	4.46

(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어느 쪽도 아니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단위: 명]

<표4>는 GSL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귀국 후에 실시한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4>에서 GSL에 참여한 학생들의 GSL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GSL 프로그램의 내용은 참가자가 참여하고 싶었던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항목4) 자신의 봉사-학습 목표와 일치하였기 때문에(항목3)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며(항목8) 의미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항목1). 이처럼 GSL 프로그램은 참여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항목14)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항목9) GSL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항목11) 기대한 만큼의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하였다(항목10). 이에 따라 GSL 참가자의 약 90%가 GSL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권장하고 싶다고 하였다(항목6, 항목7). 특히 항목 2의 결과에서 GSL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GSL 활동이 자신의 일본어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특히 항목 5, 12, 1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GSL 활동이 일본인과의 교

류 및 국제교류활동, 나아가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예시1>과 같이 귀국 후에 학생들이 작성한 GSL 결과보고서 예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SL에 참여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으며 GSL은 학생들의 일본어 실력향상 및 일본인과의 교류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표4> GSL 사후조사 결과

항목	1	2	3	4	5	평균
1.GSL 프로그램의 내용은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				26	58	4.69
2.GSL 프로그램은 일본어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5	30	49	4.52
3.GSL 프로그램의 내용은 나의 봉사-학습 목표와 일치하였다.		1	4	25	54	4.57
4.GSL 프로그램의 내용은 내가 참여하고 싶었던 것들이다.			9	30	45	4.43
5.GSL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봉사 활동 등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다.			11	29	44	4.39
6.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GSL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7	13	64	4.68
7.GSL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도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싶다.			9	21	54	4.54
8.GSL 프로그램의 경험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5	22	57	4.62
9.GSL 프로그램의 분위기는 진지했다.			5	14	65	4.71
10.GSL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대한 만큼의 욕구가 충족되었다.			4	28	52	4.57
11.GSL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1		11	25	47	4.38
12. GSL 활동을 통해 일본인과의 교류에 자신감이 생겼다.			6	30	45	4.32
13.GSL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시민의식이 개발되었다.			4	31	49	4.63
14.GSL 프로그램을 통해 나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8	31	45	4.44
15.내가 배운(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었다.			11	37	36	4.30
16.일상생활에서 내가 배운 경험을 적용할 때가 많다.		1	14	35	34	4.21

(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어느 쪽도 아니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단위: 명]

(1) 글로벌서비스러닝 - 문화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자체평가

가. 문화교육활동 성찰

- 일어일문과 학생이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득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어 실력 향상은 물론 일본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알고 싶어지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 일본의 지하철, 버스에서의 예절 문화부터 식사 예절, 인사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일본인 친구를 사귀는 등 한국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일본어를 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자신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공부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었다.
- 여행으로 갔을 때는 사용하지 못했던 일본어를 글로벌서비스러닝을 통해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사회와 시민들의 의식 등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었으며, 편협했던 나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다. (중략)

<예시1> GSL 결과보고서 (2016-나고야 하계) (밑줄은 필자에 의함)

5.2 GSL의 성과와 과제

GSL 활동이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일본어 학습 및 이문화 이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GSL 결과보고서에 기술된 내용 가운데 참가자의 생각이나 느낌, 감상 등이 적혀진 문장을 발췌하여 의미단위별로 개념화하고 이를 다시 범주화하였다. <표5>는 GSL 결과보고서에서 도출된 개념 및 범주를 정리한 것이다.

<표5> GSL 결과보고서에서 도출된 개념 및 범주

범주	하위범주	개념 (건수)
GSL 참가 이유	지원동기	· 해외봉사 희망 (2)
		· 진로를 위한 한일교류의 경험을 쌓기 위해 (1) · 일본어 회화 실력향상 (1) · 일본, 일본인에 대한 호기심 (1) · 인생에서 몇 번 겪지 못할 경험(1)
GSL의 효과	일본어 의사소통	· 일본인과 직접 일본어로 말해 보는 기회 (12) · 다양한 사람과 일본어로 의사소통 (9) ·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습득 (3) · 일본어 실력향상 (3) · 일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한 불안 해소 (2) · 다양한 주제로 의사소통 (1)
	일본 문화 체험	· 교통수단 (8)-일본의 교통카드 iccoca, 지하철 탑승 방법, 지하철 내의 거울, 포스터 문구, 한국과 일본 버스의 차이, 블라인드가 있는 전철 창문, 전철탑승 대기 시 줄 서는 방식, 대중교통 이용 시 혜택 · 식문화 (7)-찌라시즈시, 일본식 식습관(젓가락만 사용), 일본의 가정식, 혼밥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 (6) · 일본의 놀이 문화 (5)-일본식 술래잡기, 다루마상가코른다, TOTO체조, 겐다마 · 전통문화 (3)-가루타, 다도 · 유카타 체험 (3) · 주거환경 (2) 일본 시골집 체험, 다다미 체험 · 한일 편의점 문화의 차이 (2)-음식을 데워주는 방법, 계산 시 편의점 점원의接客 방식의 차이 · 동전 지갑-현금 사용이 많은 일본(1) · 자동판매기가 많은 일본 (1) · 친절한 점원 (1)
일본 사회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육 방식의 차이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립-아이들 스스로-한국과 비교 (16) ② 규칙 준수, 생활 지도 (3) ③ 철저한 예절 교육-타인에 대한 배려 (2) ④ 독서 지도 (1) · 메이와쿠 문화-고령자, 장애인의 자립정신 (4) · 개인주의/혼밥 (3) · 고령화 문제 (2) · 장애인에 대한 인식 차이(-한국과의 비교) (2) · 목욕탕에서 자리 비워 주기(-한국과의 비교) (1) · 지진대피훈련(-한국과의 비교) (1) · 친절한 서비스 (1)
일본의 복지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봉사 시스템, 복지환경 (10)-고령자 및 장애인 시설, 일본 복지제도 · 봉사자의 태도 (7) · 介護 방식(6)-자립, 함께 생활, 유연한 분위기, 활기, 자기 결정, 선택 존중 · 한국의 복지 환경과 비교 (4)
인식개선, 자아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일본인,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바뀜 (6) · 내면 성장·자기 자신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시간 (10) ·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 제고 (2)
동기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일본어 학습 의욕 상승 (6) · 앞으로의 진로 등에 대하여 생각 (3) · 향후 봉사활동 다짐 (3) · 초등교사, 특수교사, 보육교사에 대한 관심 (2)
팀원과의 연대감, 공동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원과의 연대감, 팀워크의 중요성 (8) · 공동체 의식 (5)
GSL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 의사소통(12), 말실수 · 민폐가 되지 않을까 (4) · 자기 자신, 자신감 부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일본) 봉사활동에 대한 불안, 걱정(3) · 경험 부족 (3)-한 번도 장애아동을 안아본 적이 없어서 · 팀원과의 교류 (3) · 막중한 책임감, 심적 부담 (3) · 실수에 대한 두려움 (2) · 낯선 환경 (1) · 새로운 도전(1) · 피로 누적 (1)
--	--	--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작성한 GSL 결과보고서의 여러 기술들을 개념화하고 이를 범주화한 결과, 크게 GSL 참가 이유, GSL의 효과, GSL의 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GSL) 지원동기, 일본어 의사소통, 일본 문화 체험, 일본 사회 이해, 일본의 복지 제도, 인식개선·자아성찰, 동기부여, 팀원과의 연대감·공동체 의식, (GSL에 대한) 불안·걱정·어려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학생들이 GSL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GSL 활동이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일본어 학습 및 이문화 이해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향후 GSL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작성한 GSL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2.1 일본어 학습과 이문화 이해의 장으로서의 GSL

<표5>에서 GSL에 참가한 학생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이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호기심으로 본 프로그램에 신청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일본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혹은 진로를 위한 한일교류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해외봉사를 해보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 일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평소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 시작했다. (2017-교, C)⁷⁾

GSL에 참여한 학생들은 9박 10일간의 일정 가운데 고령자와 아이들, 장애

7) 2017년 교토지역 GSL 활동에 참가한 C학생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일부분을 발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예문에서 괄호 안 첫 번째 숫자는 과건연도를 뜻하며 도-도쿄지역, 나1-나고야 지역(하계 파견), 나2-나고야 지역(동계 파견), 교-교토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마지막에 있는 H, J 등은 학생을 의미하는 기호이다.

인, 봉사 기관 스텝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교토 지역으로 파견된 학생들의 경우 일본인 스텝들과 함께 합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어에 노출 되는 환경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본어 의사소통에 관련된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기술하였다. <표5>와 다음의 예(2)~(5)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학생들이 GSL을 통해 직접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가 마련된 것에 대한 소회나 감상 등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GSL은 참가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본어를 습득하고 일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일본어 실력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2) 평소 일본어를 배우면서 잘 쓸 기회가 없어 아쉬웠지만 이번 기회에는 원 없이 나의 부족한 일본어 실력을 향상 시키고 몰랐던 생활 용어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였다. (2017-나2, KM)
- (3) 지난 일주일간 한국어보다는 일본어를 많이 사용했더니 다들 자기도 모르게 일본어가 툭툭 섞여서 재밌었다. (2017-교, J)
- (4) 지금까지 일본어를 배우면서 실질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해 대화를 할 수 있는 일본인 친구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되어 너무 좋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GSL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2017-나1, H)
- (5) 일본의 대학생 분들과 대화하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험한 문제, 역사 교육 문제, 위안부 문제 등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018-도, C)

<표5>에 제시한 바와 같이 GSL은 교과서에서 배운 일본의 전통 문화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문화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즉, 다음의 예(6)~(9)와 같이 다도와 유카타, 온천, 다다미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문화를 체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본에서 체류하는 동안 일본의 교통수단, 편의점, 혼밥문화 등과 같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차이점 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 (6) GSL을 통해 다도를 배울 수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가 직접 말차를 만들어보며 할머니들께 대접 해 드렸다. 다도의 역사도 알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다도가 섬세한 손짓과 우아함이 담긴 문화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2018-도, J)
- (7) 한국 버스와와의 차이점은 우선 안내방송을 운전자가 직접 한다는 것이다. 내릴 곳

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 돈다.’ 왼쪽으로 도니 조심하세요.’ 등 세세한 부분까지 방송해준다. 부러웠던 차이점도 있다. 바로 내릴 때에 벨을 누르고 먼저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였다. 느긋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받아 잠시나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을 느껴서 너무 좋았다. (2017-나1, H)

(8) 전철 안에서 신기했던 것은 창문마다 블라인드가 달려있던 점이였다. 아침마다 전철을 타고 학교를 갈 때 얼굴에 다이렉트로 쬐히는 햇빛을 보면서 전철 안에도 고속버스처럼 커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위아래로 내릴 수 있는 블라인드가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기뻐다. (2017-나1, S)

(9) 거스름돈을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지갑 속에 돈을 넣던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서인지 눈앞에서 손가락에 힘을 주어 지폐를 열심히 세어주는 편의점 점원의 모습을 보면서 미묘한 감정이 들었다. 일본과 한국을 멀고도 가까운, 혹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틀에 걸쳐서 살펴본 결과 저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2017-나1, K)

또한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 가운데는 고령화, 자연재해, 개인주의와 같이 일본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한 기술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중요시 하는 일본 사회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부분 등이 있었다. 특히 다음의 예(10)과 같이 자신들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보육·교육 방식에 관해 언급한 경우가 많았는데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든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립정신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한국과 다른 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예(11)와 같이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봉사 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의 결과보고서에도 기술되어 있었다.

(10) 뭐든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지켜보고 도와줄 뿐인 것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가 기억하는 유치원 시절은 도시락을 가져가면 잔반을 담아주는 선생님과 같은 위험하다가 절대로 쥐어주지 않는 부모님이였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힘을 길러주고 있는 모습이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자세인데 배워야할 부분인 아닌가 하고 계속 생각했다. (2017-나1, S)

(11) 아기들 보육원 활동을 할 때에도 느꼈던 것이 굉장히 의존적으로 키우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모두 똑같았다. 각자의 식판을 올려둘 수 있는 이동판에 줄을 연결하여 붙잡고 있게 하는 방식이였다. 그게 어떻게 스스로 하는 것이냐고 이야기 할 수 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 분들에게 최선의 방법의 자립적인 행위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 방침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이나 장애인분들을 노약자로 국한시켜 돌봄을 당하는 대상으로 정의 내리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반인들과 같은 사람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2017-나1, H)

다음으로 GSL 결과보고서에는 봉사 기관에서의 봉사가 주요 활동인 만큼

일본의 체계적인 봉사 시스템에 관한 언급과 한국과 일본의 복지환경을 비교한 부분이 많았다. 학생들은 예(12)와 같이 봉사 기관 스텝의 태도와 介護 방식 등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향후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선생님들이 자신의 옆에 앉거나 누워있다시피 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 주는 듯한 태도에 몽클함을 느꼈다. 가장 무언가를 느꼈던 날이 언제냐고 한다면 나는 이 날을 꼽을 것이다. 그리고 기관의 선생님들이 가장 존경스러웠던 날이기도 하다. 어떻게, 이렇게 고되고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밝게 웃을 수 있을까. 삶의 가치를 둘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세계에 이바지한다는 말을 책에서가 아니라 눈앞에서 배워 버린 나는 문득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되돌아보았다. (2017-나1, P)

이와 같이 학생들은 GSL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유카타, 다다미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문화뿐만 아니라 보육 방식, 장애인에 대한 인식, 봉사자의 태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선미·김찬란(2013)은 해외에서의 봉사활동은 본격적인 문화간 조우(intercultural encounter)와 “깊은 문화 차이”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의 장이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GSL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본에서의 단기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문화(異文化)로서 일본을 이해하고 자문화(自文化)인 한국 문화를 상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생들 가운데는 예(13)과 같이 GSL을 통해서 일본, 일본인,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언급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봉사 활동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적은 학생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GSL은 참여한 학생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3) 공민관에서 실시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봉사자 분들이 누군가가 약자이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생각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활동에 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크게 약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 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봉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2018-도, L)

마지막으로 GSL은 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팀원과의 연대감, 공동체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는 GSL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로서 다음의 예(14), (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 도쿄팀 언니들과의 인연도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다. GSL이 아니었다면 같은 학과지만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기에 소중함을 알 수 있었다. (2018-도, J)

(15) 힘든 와중에도 다른 팀원들과 팀 하나, 그리고 일의 효율까지도 생각해 내는 모습이 멋졌고 엄청난 힘이 되었다. 워크와 토론을 통해 하나가 되는 우리를 느낄 수 있었다. (2017-교, H)

5.2.2 GSL의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SL은 참가한 학습들의 일본어 학습과 이문화 이해의 장이 되었으며 반성과 성찰 등을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작성한 GSL 결과보고서에는 GSL 활동 시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어려움 등에 대한 기술이 많았다.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일본어 의사소통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따라서 GSL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는 예(16)와 같이 자신의 부족한 일본어 실력으로 인하여 일본의 각 봉사 기관에서 일본인 스태프들과 함께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일본어로 표현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16) 막상 준비를 하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나는 불안해했다. 내 일본어로 잘 소통할 수 있을 까,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다 선배들인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내내 불안했다. (2017-나1, L)

그 밖에도 일본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 함께 가는 팀원과의 관계 등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으며 낮은 환경과 육체적 피로 등을 언급한 학생들도 있었다. GSL의 경우, 현지 파견에 앞서 인솔교수의 지도 하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교육에서는 현지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일본어 회화 능력 양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일본 봉사활동 시 예상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교육이나 한일간의 사회문화 차이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하여 사전교육의 목표를 재설정함으로써 일본어 회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모임 등을 통해 일본 봉사 기관과 봉사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구성

원들 간의 소속감 및 연대감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6. 마치며

본 논문에서는 일본 현지에서의 사회·문화체험 학습과 일본인과의 교류를 통해 전공과정에서 배운 일본 관련 지식을 심화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GSL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하고 GSL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및 GSL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GSL과 같은 일본 단기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으며 일본인과의 교류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나아가 이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글글로벌 시민의식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GSL 활동 시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GSL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보다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GSL 활동이 구체적으로 일본어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참가 학생들이 GSL 경험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지만·김예란(2013) 「고독과 빈곤의 조우, 혹은 환대의 경계: 한국 대학생 봉사 여행에서의 주체 형성에 대한 소고」 『문화와 사회』 14 한국문화사회학회, pp.7-50.
- 박은정·박매란(2018) 「단기 해외 연수에 따른 한국 대학생의 문화간 민감성 변화 분석」 『영어영문학21』 31(1) 21세기영어영문학회, pp.99-120.
- 서홍란·박정란(2014)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기초연구」 『청소년학연구』 21(2) 한국청소년학회, pp.139-168.
- 이선미·김찬란(2013) 「단기 해외 체험에서 프로그램 구성 요인이 문화간 감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7(5) 한국교양교육학회, pp.523-556.
- 조문영(2013) 「공공이라는 이름의 치유: 한 대기업의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본 한국 사회 ‘반 빈곤’과 ‘대학생’의 지형도」 『한국문화인류학』 46(2) 한국문화인류학회, pp.45-91.
- 조혜영(2015) 「국제이해교육 관점에서 살펴 본 대학생 해외 봉사활동 경험: 의미와 한계」 『국제이해교육연구』 10(2)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pp.1-43.
- 齋藤明美(2013) 「ホームステイが日本語学習と異文化理解に与える影響-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を中心

にして-」 『日本語教育研究』 第27輯, 韓国日本語教育学会, pp.101-119.

논문 투고 일자 : 2018. 12. 31.
논문 심사 일자 : 2019.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9. 02. 01.

 < 要 旨 >

日本短期ボランティア活動の効果に関する基礎調査

李善姬

本論文は日本での社会・文化体験学習や日本人との交流を通して日本人との交流を深めるために実施しているグローバルサービスラーニング(Global Service Learning, 以下GSL)について紹介し、GSLに参加した学生を対象に実施したアンケート調査結果及びGSL結果報告書を分析したものである。その結果、GSLのような日本短期ボランティア活動は学生の日本語能力の向上に効果があり、日本人との交流に関心を持つ機会となったことや異文化理解を基にしたグローバル市民意識の向上に効果があったことがわかった。しかし、GSL活動の際、学生たちが感じる緊張や不安への考慮が必要であることが浮彫りになった。今後、本研究での研究結果を一般化するためには、GSLプログラムの効果に対し、より緻密な分析が必要であり、GSL活動が具体的に日本語学習にどんな影響を与えており、参加学生たちがこの経験を実際の生活でどのように活用しているかについて追跡調査が必要である。

A Found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s of Short-Term Volunteer Activities in Japan

Lee, Sun-Hee

This study introduces an ongoing Global Service Learning (GSL) program that aims to deepen students' knowledge about Japan acquired through the course of their major studies by way of onsite learning about Japanese society and culture and conducting exchanges with Japanese people. The study further analyzed the results of a survey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GSL activities along with the GSL program's report on outcom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SL program sparked students' interest to improve their Japanese language skills and conduct exchanges with the Japanese. It also helped build a consciousness among the students to become global citizens, a consciousnes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Moreov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a need for GSL programs to consider the anxiety and fear felt by students during GSL activiti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a more detailed analysis of the effects of GSL programs to ensure that the results can be generalized. There is also a need for research that tracks the specific impact GSL activities have on Japanese language study and how the participating students use their GSL program experience in daily life.